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2
----------	------

발의연월일 : 2020. 10. 13.

발 의 자 : 정진석·임이자·추경호
홍문표·송언석·정희용
이종성·권명호·김정재
김선교·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보전산지를 취득(99만 제곱미터 이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 및 임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된다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생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u>2023년</u> ----- ④ (현행과 같음)